

밀목재 생태축 복원 '탄력'

장수군 밀목재,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 최종 대상지 선정

장수군 밀목재가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 관련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군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지방도 제742호선(덕산로) 개설로 단절된 밀목재를 연결하는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해당사업은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산림복원사업의 일환으로 단절된 백두대간(금남호남정맥) 산림 생태축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한 후 지역 특성에 맞는 자생식물을 식재해 단절된 백두대간(정맥)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번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 선정으로 규비와 지방비 등 5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장수를 동춘리 밀목재 부근에 단절된 생태축을 복원할 계획이다.

이성재 산림과장은 "사업에 선정된



밀목재 전경

민림 단절된 생태축을 복원해 산림 내 동·식물의 이동 및 서식지를 확보하고, 지형 입지 여건에 적합한 자생식물을 식재해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협약을 맺은 필리핀 퀴리노주를 방문해 상호 신뢰 확보를 위한 행보를 펼쳤다(사진 왼쪽부터 다릴라 카를로 퀴리노주 주지사, 전춘성 진안군수)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호 신뢰 확보

전춘성 진안군수, 협약 맺은 필리핀 퀴리노주 상호 방문 나서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협약을 맺은 필리핀 퀴리노주를 방문해 상호 신뢰 확보를 위한 행보를 펼쳤다.

군은 지난 2월 10일 필리핀 퀴리노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7월에는 해당 주의 다릴라 카를로 주지사를 초청해 파견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에 대한 경력과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견학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퀴리노주 방문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다릴라 카를로 퀴리노주 주지사의 초청을 받아 전춘성 군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과 밀접하게 활동하고 있는 변성섭 농업경제국장, 박시진 농민회장, 이효을 농업정책과 인력지원팀장과 함께 추진됐다.

전 군수는 퀴리노주를 방문해 다릴라 카를로 주지사와 접견을 갖고, 현지의 실정을 파악하기 위한 시간과 내

년도 외국인 계절근로를 희망하는 신청자들과의 간담회를 갖는 등 짧은 기간 동안 팍팍한 일정을 소화해냈다.

이번 교류를 기점으로 현지의 상황을 파악함에 따라 농촌의 인력문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개선해 나가고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해 영농 일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다릴라 카를로 퀴리노주 주지사는 "이번 방문으로 인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양질의 계절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상호의 방문으로 인해 신뢰가 확보된 만큼 내년도에도 검증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에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향우회 회원들, 무주반딧불축제 깜짝 방문

향우의 날 기념식 가져

서울과 부산, 전주,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군 향우회 회원들이 지난 2일 고향 무주에서 만나 향우의 정을 나눴다.

이날 만남은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를 축하하고 마음을 모아 고향 무주의 발전을 응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2일 낮 무주에 도착한 이들은 무주수련원에서 향우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이 행사는 무주군 애호운동본부 주관(본부장 김용봉)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 윤정훈 전라북도의회 의원, 유승열 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지휘했으며 재경무주군민회 김철호 회장과 재대전무주군민회 이하영 회장, 재부산무주군민회 한우영 회장, 재전주무주군민회 김기수 회장을 비롯한 각 지역 회원 등 4백여 명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오늘의 무주, 올해의 무주반딧불축제는 모두 각자에서 고향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향우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발전하는 무주, 성장하는 무주반딧불축제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무주는 여러분이 언제라도 오셔서 쉬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매가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기다리고 있는 고향이



서울과 부산, 전주,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군 향우회 회원들이 지난 2일 고향 무주에서 향우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 개막식 전 행사로 치러진 반디 입장식의 일원으로도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개막식 후에는 남대천 반디 빛의 향연(드론쇼, 무주 안성나화놀이, 디지털 불꽃쇼)을 참관하며 아름다운 고향의 밤을 만끽했다.

무주군 향우회 회원들은 "오랜만에 고향에 와서 너무 기쁘고 선배님들을 한자리에서 만나 너무 좋다"며 "한 해 한 해 발전해가는 고향 무주가 자랑스럽고 향우의 한 사람으로서 고향 무주 발전을 위해 또 무주반딧불축제

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항상 응원하고 힘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앞장 서겠다"고 입을 모았다.

무주덕유신리조트에서 여정을 풀고 3일 다시 덕유신으로 이동한 이들은 어사길을 함께 걸으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재경무주군민회, 재대전무주군민회, 재부산무주군민회, 재전주무주군민회 회원들은 7백여 명으로 이들은 고향사랑 기부를 비롯한 장학금 기탁, 이웃돕기 반딧불농특산물 판매 등에 앞장 서며 귀감이 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실시

장수군은 지난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본공통교육을 실시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역의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수군은 2019년부터 사업에 공모·선정돼 운영하고 있다.

군은 총 2억 5,910만원의 예산을 들여 2023년 장수군 지역주도형 청년일

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 현재 장수군 지역특화 사업장 10개소, 14명의 청년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참여 청년의 장기근속 동기부여를 통한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사기원 작가의 인문학 강의와 삶에 관한 인문학 강연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하는 근로기준법 △직장 적응을 위한 조직문화의 이해 △직장인 필수상식 회계&법률 △직장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위한 직장 소통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 청년캠프 참여자 모집

진안군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진주)는 9월과 10월 각 1회씩 4박 5일에 걸쳐 진행되는 청년캠프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청년캠프는 진안군에 귀농·귀촌하기를 희망하는 권외 청년(1978년생부터 2004년생까지, 진안군 기준)이 대상이며, '그럼에도 우리는 진안!'이라는 주제로 진안군의 청년 정책과 마을탐방,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청년캠프 신청은 1차 2차로 나눠 진행하며 9월 18일에서 22일까지 진행되는 1차 프로그램은 9월 13일까지 접수받고, 10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진행되는 2차 프로그램은 9월 27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청년캠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refam_1@naver.com)로 접수하고, 교육에 대한 자세한 문서는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063-433-0243/0245)로 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진안군이 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0일 간 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필지는 총 999필지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용이 있었던 필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 및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 전북)으로 열람 할 수 있고 의견제출은 방문, 팩스, 우편, 메일, 유선을 통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산정지가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증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통지하며,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가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